

분별의 인장

2013년 3월 1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이 성지에,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이의 이마에 내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 인장의 보호 아래 영혼들은 자신의 구원으로 가는 길 즉,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것이다. 오래된 죄악들은 밝혀질 것이다.”

“내가 말하는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앞서 언급한 약속의 핵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실된 마음은 진리를 찾아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올바른 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오류를 찾거나 하지 않는다. 그는 있을 수도 있는 오류는 언제나 진리나 현실, 사실들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는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며, 진리에 마음을 열고자 한다.”

“이 ‘분별의 인장’의 보호가 진리를 드러낼 것이다.”

모린: “과거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하려 하거나 믿지 않으려는 의향 없이 열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왔다면 내 인장이 그들에게도 머무를 것이다.”

모린: “그저 메시지들만 읽을 뿐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문제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도저히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나는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갈망을 존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영적인 인장을 지닌 모든 이가 내 성심에 인장처럼 찍혀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해준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2013년 3월 1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는 마음속에 사려 깊은 질문을 품고 있구나. 내게 질문하여라.”

모린: “저는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 성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메시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 자동적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수님: “그것은 오직 그들이 이 성지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일 때만 그렇다. 즉, 이곳으로 오는 여정을 가로막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혼은 스스로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모린: “인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인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우선,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인장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 상태 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또한 도와준다. 이 인장을 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다. 이전에 진실한 마음은 곧 진리에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네게 말해준 적이 있다. 이해가 되느냐?”

모린: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2013년 5월 2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유일무이하고 매우 특별한 은사인 ‘분별의 인장’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이 인장은 ‘진리의 세례’에 비교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례’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진리의 세례’는 (양심) 조명처럼 영혼이 세상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달도록 도와줌으로써 영혼을 한 번 씻어준다.”

“반면에 ‘분별의 입장’은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번 이 입장을 얻은 영혼은 진리 외엔 그 어떤 것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의 영혼은 다른 이들에게서 보이는 기만과 속임수에 대해 대단히 예민해진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옹호하라는 내적 부름을 느낀다. 내 ‘양심의 깨달음의 입장’은 영혼이 내세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과 함께 한다.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 이 입장을 얻는다. 이들은 이 메시지들과 이곳의 내 선교사업에 마음이 열려 있으며 선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이 메시지들을 계속 전파하여라. 이 메시지들이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 즉,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나라로 이끌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2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오늘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고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 진실한 마음은 믿음에 열려 있으며, 이 선교사업이나 성지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다. 진실한 마음은 믿지 않음으로써 무언가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그런 이는 이 선교 사업을 시기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곳에 온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이곳에서 주는 모든 것을 반박하기 위해 이 성지에 오지 않는다. 그는 또한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천상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하느님의 손이 써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백지와 같으며, 빈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부와 같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프리즘(분광기)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제각각 다르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총을 얻지 않는다.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성지에서 보내는 모든 현 순간은 제각기 독특한 은총을 지니고 있다. 천상은 모든 감각들 즉,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활용하여 이곳에 천상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분별의 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 뿐이다.”

“이 입장은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천상의 계획에 따라 이곳 성지에서만 주어진다.”

진리의 축복

2014년 9월 1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계명들을 지키는 것만이 세상을 전쟁과 테러리즘과 재해로부터 구할 것이다. 이 계명들은 거룩한 사랑 안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이들은 내게 반대한다는 말이 된다.”

“나는 이 땅(마라나타 샘과 성지), 이 광야를* 큰 은총과 평화의 성역으로 바꿔놓았다. 삶을 바꾸고 사탄의 배반으로부터 구제되도록 가능한 모든 은총이 이곳에서 확실하게 영혼들에게 주어진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시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분별의 입장을 베푸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악의 수용을 낳았으며 이런 수용은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도덕적으로 퇴폐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의로운 이들은 이런 타락에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신념에서 용감해져야만 한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넘어가지 마라. 나는 이곳 성지에서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축복’을 줄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소중하며, 마땅히 그들 모두에게 진리의 빛이 알려져야만 한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사악한 만큼 나는 계속해서 이 메신저와 이곳 성지[마라나타 샘과 성지]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이에게 내 ‘진리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진리의] 축복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로 들어가는 영혼의 영적 여정이 더 깊어지도록 영혼에게 자기 인식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내 눈에 어떤 지도부가 훌륭하게 보이는데 대한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거짓과 부패한 지도자들을 지지하거나 따를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며, 영혼은 좀 더 쉽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남은 신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과대 선전되는 시대가 이미 너희에게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고, 귀를 기울여라.”

2014년 9월 17일

모린이 여쭙니다. “예수님,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축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이 진리의 타협과 지도부의 권한 남용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모린이 여쭙니다. “(그 축복은) 이곳에 이미 왔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소급적인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린이 여쭙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성지로 와야만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린이 여쭙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모두 다 그 축복을 얻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만 그렇다.”

2014년 9월 2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이 [진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사도직을 도유(塗油, anointing)한다.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사랑의 진리의 사도가 되기를 요청한다. 나는 인간이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인간의 양심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모든 권위가 다 의롭거나 맹목적인 복종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류가 깨달도록 돕고 있다.”

“지금쯤 사람들의 양심이 반드시 계명에 의거한 선악에 관한 진리 안에서 잘 형성되어야만 하는 때다. (여기에는) 어떤 혼란도 있어서는 안된다.”

2014년 9월 29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외관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적과 싸우려면 반드시 적을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악은 좋은 뜻을 품은 영혼들 안에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곳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주어진 ‘진리의 축복’과 ‘분별의 인장’이 선과 악의 싸움에 한층 중요성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영혼에게 진리를 알아내고 악의 가면을 벗기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나는 ‘용’에 맞서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의 선봉장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진리의 방패’가 모든 이의 마음을 덮기를, 그리고 종국에는,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때 세상의 마음을 덮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지에 있는) 내 호수 곁에서 이 성지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느끼는 천상적 평화는 내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나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진리의 방패’를 전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은총의 가장 큰 몫은 이곳[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단순

한 (마음으로) 오는 이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기적이나 증거를 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위해 이곳에 온다.”

“너희는 너희가 모든 답을 알고 있으며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종의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지지 마라. 너희가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성령께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매 현 순간을 새로이 하신다.”

“이곳으로의 너희의 순례가 내게 선물이 될 수 있게 하여라. 나는 내 ‘진리의 축복’으로 너희를 위해 진리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분별의 인장’과 ‘진리의 축복’을 얻도록 그들을 다시 한 번, 그리고 항상, 이기도 성지[마라나타 샘과 성지]로 초대한다. 이 특별한 은사들이 없다면 너희는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도록 쉽게 속아 넘어간다. 너희의 우선 순위들도 타협되며, 또한 너희는 다른 이들의 가치 없는 의견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된다…”

“영혼이 선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 겉보기엔 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악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리의 축복’은 감춰져 있는 것을 영혼이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분별의 인장’은 영혼이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는다. 당연히 악은 이런 진실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상의 마음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영혼이 진리 안에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 이 메시지는 1986년부터 목격증인 모런 스위니 카일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천상의 메시지 중 주제별로 발췌한 일부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Holy Love Ministries)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lylovekorean.com (한국어)

www.holylove.org (영어)